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SAT?

1926년에 도입된 **SAT(Scholastic Assessment Test)**는 수많은 학생들의 입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SAT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불합격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 SAT는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시험으로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지리적 경계를 넘어 재능을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SAT는 교육 기회와 불평등을 동시에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고, 특히 부유한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습니다.

SAT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칼 브리검(Carl Brigham)**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지능 평가 방법을 바탕으로 개발했습니다. 시험의 본래 목적은 특정 과목의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사회,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재능 있는 개인을 발굴하여 고등 교육의 기회를 민주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SAT를 대중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30년대, 당시 총장이었던 **제임스 브라이언트 코넌트(James Bryant Conant)**는 SAT를 도입하여 다양한 경제적, 지리적 배경을 가진 학업적으로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처럼 SAT는 능력주의적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고등 교육에서 중요한 시험으로 자리 잡았으며, 다른 명문 대학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1940년대에 이르러 SAT는 선별적인 대학 입학 절차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I 법안(미군 보훈법안)은 고등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하도록 만들었고, 이로 인해 표준화된 평가 도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대학들은 SAT를 통해 다양한 교육 체계에서 지원한 수험생들을 비교하고, 전국 및 전 세계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며, 지역 간 커리큘럼 차이를 넘어 학업적 잠재력을 평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SAT가 이러한 목표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은 SAT가 정말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사회적 위계를 강화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SAT에 대한 비판은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SAT 점수는 가족 소득, 부모의 학력, 자원 접근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는 SAT가 타고난 능력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에서 오는 이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충분한 재정을 가진 가정은 Kaplan, The Princeton Review와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값비싼 SAT 준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이들 회사는 점수 향상을 보장한다고 광고했습니다.

SAT 점수를 향상시키는 데 비싼 준비 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원하는 점수를 얻기 위한 유일한 비결은 아닙니다. 결국, SAT를 준비하는 각 학생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시험 기술을 스스로 개발해야 합니다. SAT 준비 초기에는 Kaplan의 창립자인 **스탠리 카플란(Stanley Kaplan)**이 학생들에게 SAT 문제를 암기하게 하고 실제 시험과 유사한 연습 자료를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접한 학생들은 원하는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시스템 공략”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SAT 기출문제가 공개되어

있으며, 거액을 들여 특권적인 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한 노력과 헌신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상 Princeton Review SAT 책은 대략 \$20~\$30에 구매할 수 있으며, 중고 책은 eBay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정적 지원이 충분한 학교(예:부유한 사립 학교) 학생들이 AP 수업이나 교외 활동 같은 고급 과정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어 SAT 점수가 간접적으로 향상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재정 지원이 부족한 학교(예: 저소득 지역 공립학교)는 이러한 자원을 제공하지 못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주장 합니다. Johns Hopkins Center for Talented Youth(CTY)와 같은 여름 캠프나 심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업 준비를 제공합니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SAT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잘 지원받는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SAT 점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 지원이 부족한 학교에도 뛰어난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가장 선호되는 고등학교들에서도 SAT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명문 대학에서 운영하는 많은 여름 캠프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으로 평균 이상의 SAT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높은 SAT 점수를 취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SAT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이미 높은 학생들이 참여 했다는 것 입니다.

SAT가 불평등을 상징한다고 보는 관점은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단순화된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유한 학생들은 성적, 교외 활동, 고급 과정 접근성 등 여러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학교 재정 지원의 격차나 세대 간 부의 차이와 같은 더 깊은 구조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비평가들은 SAT가 눈에 보이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이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입학 과정의 다른 요소들—예를 들어, 졸업생 자녀 우대, 성적 인플레이션, 교외 활동 접근성 불평등—또한 부유한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1995년, 뉴욕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당시 롱아일랜드의 부촌에 사는 한 학생을 대상으로 SAT 개인 과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주 2회, 2시간씩 진행된 이 과외는 수업료만으로도 학원 월세의 $\frac{3}{4}$ 을 충당할 정도로 고액 과외였지만, 성적이 크게 향상되지 않아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수업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수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이 주 2회, 두 시간 동안이라도 저와 함께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특권층 배경의 학생들이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SAT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시간과 금전을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SAT 점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부유한 계층의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SAT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입학 과정에서 SAT 점수를 배제한다고 해도 명문 대학들의 학생 구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후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